



한국HP 그래픽솔루션 비즈니스 사업부 성과 및 시장전략 발표 인디고, 2012년까지 200% 성장 목표

한국HP(대표 스티븐 길)는 지난 7월 19일 서울 여의도 본사 20층 회의실에서 그래픽솔루션 비즈니스 사업부의 사업 성과 및 시장전략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국HP는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19%의 매출 성장을 보여 국내 디지털 프린팅 시장을 선도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HP의 그래픽솔루션 비즈니스 사업부는 디자인, 사인(Signage)시장을 비롯하여, 상업용, 산업용 출력 시장 공략을 위해 HP인디고프레스, 사이텍스, 디자인젯 등 의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프레스 장비를 통한 디지털인쇄장비의 출력량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2008년에 비해 2009년에는 108%의 급성장세를 보여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최고의 성장

률을 기록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영국의 시장조사 기관인 PIRA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오는 2014년까지 한국의 아날로그 인쇄 시장은 19.6% 감소하는 반면에 디지털 인쇄 시장은 77.3%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다. 이에 따르면 디지털인쇄 시장이 커짐에 따라 전 세계 출력 시장에서 출력 가능한 콘텐츠가 2012년까지 3배 이상 증가할 뿐만 아니라 출력 페이지 물량 또한 아날로그 인쇄시장에서 디지털 인쇄 시장으로 연간 2000억 페이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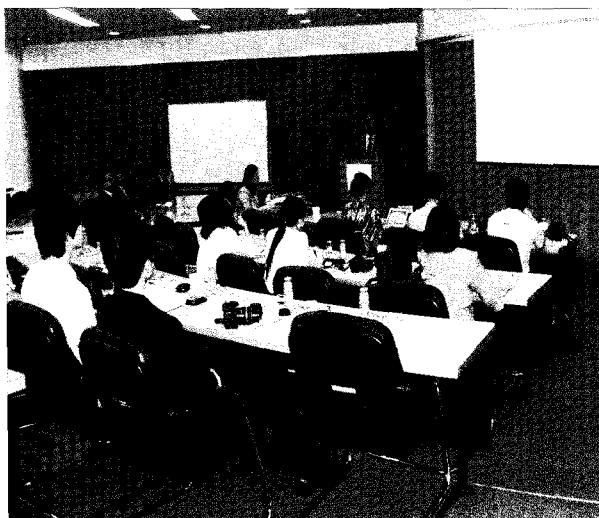
HP 인디고프레스, 2012년까지 200% 성장 목표 세워

한국HP의 그래픽솔루션 비즈니스 사업부에서 가장 높은

성장을 거둔 인디고 프레스장비는 신규수요의 급증에 따라 지난 2007년에 비해 1098%나 급성장했으며 올해까지 200%의 성장을 기록, 월 5천만 페이지의 출력(A4사이즈 컬러 출력 기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6월까지 인디고 프레스의 출력량은 A4 컬러 기준으로 1900만 페이지에 달 한다. HP의 인디고 프레스 장비는 상업용 인쇄시장에서 포토북과 사진 인화, 매뉴얼 등 소량 맞춤형 인쇄가 가능한 POD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품종 소량인쇄를 통해 출판업계의 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BOD(Book on Demand)서비스도 선보이고 있다. 또한 디지털인쇄의 장점인 가변데이터의 활용을 최대한으로 살리기 위해 라벨 및 패키징 인쇄 등에 이르기까지 산업용 시장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HP 사이텍스, 실내 대형 광고시장에 다양한 패러다임 제시

HP 그雷픽솔루션 비즈니스 사업부는 사이텍스 장비를 통해 버스, 택시 승강장이나 빌보드, 지하철, 백화점 등의 국내외 대형광고물 출력 인쇄시장도 공략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 최근 대형 광고 출력시장은 빌보드판, 건물 래핑 광고 등 실외 이미지 출력시장보다는 공항, 지하철, 백화점, 극장 등 실내 대형 이미지 출력 시장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실내 대형 광고 시장은 지난 2004년에 비해 35%의 성장을 기록했다. 한국HP는 이 같은 성장세에 발맞춰 사이텍스 제품으로 승례문 공사 외벽 가림막을 출력하는 등 출력활용도를 넓히고 있으며 디지털 프린팅을 활용한 섬유, PVC, 목재, 유리 등의 다양한 미디어에 직접 출력할 수 있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해 고객에게 새로운 선택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HP 디자인젯, 아태지역 최고성장을 12% 달성

그雷픽솔루션 비즈니스 사업부는 건축, 대형 도면, 그래픽, 지도, 지리정보시스템(GIS) 등 전문 상업용 인쇄시장 용으로 특화된 HP 디자인젯은 정교한 세부 표현으로 이미지 전달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장점이라고 소개했다. 디자인젯은 정밀한 작업이 필요한 건축 도면 및 그래픽, 지도, 그雷픽 이미지뿐 아니라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내 포스터 제작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1%나 성장해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가운데 유일한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국HP 그雷픽솔루션 비즈니스사업부의 성과 발표 및 시장 전략 발표회를 맞아 김병수 이사는 “한국HP는 그雷픽 시장에서 시장이 원하는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서 앞으로 그雷픽솔루션 비즈니스 사업부의 다양한 포트폴리오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시장에 알리는 동시에 시장에서 출력 서비스 업체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0 키페스전시회에 100 부스 이상 대규모 참가

한편, 한국HP의 그雷픽솔루션 비즈니스 사업부의 윤선영 차장은 “HP는 오는 9월 8일부터 열리는 키페스에 100부스 이상의 대규모로 전시를 한다”고 밝혔다. 한국HP는 내용면에서도 아태지역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최신 모델의 디지털인쇄기를 선보이는 것을 비롯하여 지난 5월 IPEX에 선보였던 대부분의 디지털인쇄 장비들이 선을 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HP의 국내외의 글로벌 파트너사들도 함께 참여하게 되고 전시회를 앞둔 시점에서 다양한 세미나 등을 준비하고 있어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